

예성국어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 예열지문

# 1. 이미지화: 상상하며 읽기

## 예성쌤의 한마디

“첫 문장을 읽는 태도가 곧 글을 읽는 태도가 된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미지나 장면을 상상하며 읽어보자. (나는 다음 글의 첫 문장에서 실제 인간과 AI인간의 뇌의 이미지를 떠올렸어.) 글자를 ‘읽는 게’ 아니라, 영상을 ‘본다’는 느낌이 드는 게 제일 베스트!”

인간의 신경 조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하여 컴퓨터가 인간처럼 기억·학습·판단할 수 있도록 구현한 것이 인공 신경망 기술이다. 신경 조직의 기본 단위는 뉴런인데, **㉠인공 신경망**에서는 뉴런의 기능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퍼셉트론을 기본 단위로 사용한다.

**㉢퍼셉트론**은 입력값들을 받아들이는 여러 개의 **㉡입력 단자**와 이 값을 처리하는 부분, 처리된 값을 내보내는 한 개의 출력 단자로 구성되어 있다. 퍼셉트론은 각각의 입력 단자에 할당된 **㉣가중치**를 입력값에 곱한 값들을 모두 합하여 가중합을 구한 후, 고정된 **㉤임계치**보다 가중합이 작으면 0, 그렇지 않으면 1과 같은 방식으로 **㉦출력값**을 내보낸다.

이러한 퍼셉트론은 출력값에 따라 두 가지로만 구분하여 입력값들을 판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복잡한 판정을 할 수 있는 인공 신경망은 다수의 퍼셉트론을 여러 계층으로 배열하여 한 계층에서 출력된 신호가 다음 계층에 있는 모든 퍼셉트론의 입력 단자에 입력값으로 입력되는 구조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인공 신경망에서 가장 처음에 입력값을 받아들이는 퍼셉트론들을 입력층, 가장 마지막에 있는 퍼셉트론들을 출력층이라고 한다.

**㉧어떤 사진 속 물체의 색깔과 형태로부터 그 물체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인공 신경망을 학습시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먼저 학습을 위한 입력값들 즉 학습 데이터를 만들어야 한다.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과 사진을 준비하고 사진에 나타난 특징인 색깔과 형태를 수치화해야 한다. 이 경우 색깔과 형태라는 두 범주를 수치화하여 하나의 학습 데이터로 묶은 다음, ‘정답’에 해당하는 값과 함께 학습 데이터를 인공 신경망에 제공한다. 이때 같은 범주에 속하는 입력값은 동일한 입력 단자를 통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사과 사진에 대한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에 정답인 ‘사과이다’에 해당하는 값을 ‘1’로 설정하였다면 출력값 ‘0’은 ‘사과가 아니다’를 의미하게 된다.

인공 신경망의 작동은 크게 학습 단계와 판정 단계로 나뉜다. 학습 단계는 학습 데이터를 입력층의 입력 단자에 넣어 주고 출력층의 출력값을 구한 후, 이 출력값과 정답에 해당하는 값의 차이가 줄어들도록 가중치를 갱신하는 과정이다. 어떤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면 이때의 출력값을 구하

고 학습 데이터와 함께 제공된 정답에 해당하는 값에서 출력값을 빼 값 즉 오차 값을 구한다. 이 오차 값의 일부가 출력층의 출력 단자에서 입력층의 입력 단자 방향으로 되돌아가면서 각 계층의 퍼셉트론별로 출력 신호를 만드는 데 관여한 모든 가중치들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가중치들이 갱신된다. 이러한 과정을 다양한 학습 데이터에 대하여 반복하면 출력값들이 각각의 정답 값에 수렴하게 되고 판정 성능이 좋아진다. 오차 값이 0에 근접하게 되거나 가중치의 갱신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학습 단계를 마치고 판정 단계로 전환한다. 이때 판정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대상들의 변별적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는 서로 다른 학습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1) **㉣**, **㉤**, **㉦** 중 변화 가능한 값은 무엇인가?

2) 위의 값을 변화시키는 궁극적 목표는 무엇인가?

1) **㉣****㉦**

2) 판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 2. 연결과 구분 → 4vs1

### 예성쌤의 한마디

“같은 말이 같은 말인 줄 알아야 해. 다른 말이 다른 말인 줄 알아야 해. 문맥을 통해 글자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해. 이를 토대로, ‘왜’ 그것이 정답인지는 몰라도, 최소한 ‘무엇이’ 정답인지는 알 수 있을 거야. 모든 단어/구절을 완벽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라도, ‘그나마 가장 확실한’ 정답을 찍어낼 수 있게끔 하자.”

고전 역학에 ㉔ 따르면, 물체의 크기에 관계없이 초기 운동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일정한 시간 후의 물체의 상태는 정확히 측정될 수 있으며, 배타적인 두 개의 상태가 공존할 수 없다. 하지만 20세기에 등장한 양자 역학에 의해 미시 세계에서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들이 공존할 수 있음이 알려졌다.

미시 세계에서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을 이해하기 위해, 거시 세계에서 회전하고 있는 반지름 5cm의 팽이를 생각해 보자. 그 팽이는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 중 한 쪽으로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팽이의 회전 방향은 관찰하기 이전에 이미 정해져 있으며, 다만 관찰을 통해 ㉕ 알게 되는 것뿐이다. 이와 달리 미시 세계에서 전자만큼 작은 팽이 하나가 회전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자. 이 팽이의 회전 방향은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의 두 상태가 공존하고 있다. 하나의 팽이에 공존하고 있는 두 상태는 관찰을 통해서 한 가지 회전 방향으로 결정된다. 두 개의 방향 중 어떤 쪽이 결정될지는 관찰하기 이전에는 알 수 없다. 거시 세계와 달리 양자 역학이 지배하는 미시 세계에서는, 우리가 관찰하기 이전에는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이다.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과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개념을 받아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은 ㉖ “당신이 달을 보기 전에는 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라는 말로 양자 역학의 해석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고전 논리에서는 ‘참인 동시에 거짓’인 진리치를 지닌 문장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프리스트는 그것도 다룰 수 있는 비고전 논리 중 하나인 LP\*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LP에서는 직관적으로 호소력 있는 몇몇 추론 규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전건 긍정 규칙을 예로 들어 생각해 보자. 고전 논리에서는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한다. 이는 ㉗ “P이면 Q이다.”라는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참’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이 된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LP에서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려면, 조건문과 그것의 전건인 P가 모두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라면 그것의 후건인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어야 한다. 그러나 LP에서 조건문의 전건은 ‘참인 동시에 거짓’이

고 후건은 ‘거짓’인 경우, 조건문과 전건은 모두 ‘참인 동시에 거짓’이지만 후건은 ‘거짓’이 된다. 비록 전건 긍정 규칙이 성립하지는 않지만, LP는 고전 논리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들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

\*LP: ‘역설의 논리(Logic of Paradox)’의 약자.

3) ‘아인슈타인’이 ㉘를 통해 주장하고 싶었던 내용은 무엇인가?

4) 윗글을 통해 ㉙에 대해 적절하게 추론한 것은?

- ① LP에서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고 Q가 ‘거짓’이면, ㉙은 ‘거짓’이다.
- ② LP에서 ㉙과 P가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③ LP에서 ㉙과 P가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면, Q도 반드시 ‘참’ 또는 ‘참인 동시에 거짓’이다.
- ④ 고전 논리에서 ㉙과 P가 각각 ‘거짓’이 아닐 때, Q는 ‘거짓’이다.
- ⑤ 고전 논리에서 ㉙과 P가 ‘참’이면서 Q가 ‘거짓’인 것은 불가능하다.

3) ‘배타적인 상태의 공존’은 불가능하다, ‘관찰 자체가 물체의 상태를 결정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4) ⑤

### 3. 주제 추론 → 견덕지 검증

#### 예성쌤의 한마디

“장면을 상상하며 어떠한 전반적 상황 속에서 어떠한 전반적 심리를 가지는지, 주제를 파악해야 해. <보기>의 도움이 있으면 훨씬 수월하겠지? 핵심 심리를 가지고, 선지를 쳐낸 다음, 남은 선지에 대해선 해석의 견덕지를 찾아야 할 거야. A라는 해석이 인정되려면, A라는 해석을 인정해줄 ‘명시적 근거’가 필요해.”

**[앞부분 줄거리]**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귀향한 정일은 용팔에게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다.

아버지가 아직도 지키고 있는 그의 재산을 넘겨다보는 듯한 용팔이가 따지는 산판일이 거침없이 한 자리씩 올라가는 것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며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대강만 놓아도, 하고 산판을 밀어 놓으며 쳐다보는 용팔의 눈과 마주치게 되자 정일이는 흠칫 놀라게 되는 자신의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깨달았다. ㉠여기 대한 상속세만 해도 큰돈인데 안 물고 할 수 있는 이것은 제 말씀대로 하시지요.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하는 용팔이는 정일이의 앞에 위임장을 내놓으며 도장을 치라고 하였다.

정일이는 더욱 불쾌하여졌다. 잠이 부족한 신경 탓도 있겠지만 자기의 눈을 기탄없이 바라보는 용팔이의 얼굴에 발라놓은 듯한 그 웃음이 말할 수 없이 미웠다. 이 소인 놈! 하는 의분 같은 ㉡심열이 떠오르며, 언제 내가 이런 음모를 하자고 너와 공모를 하였던가? 하고 그의 뺨을 갈기고 싶은 충동을 느끼었다. 그러나 정일이는 금시에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이 자기 얼굴에 흐름을 깨달았다. 이러한 심열은 신경 쇠약의 탓이 아닐까? 의분이랄 것도 없고 결벽성도 아니고 그런 것을 공연히 이같이 한순간에 뒤집히는 자기 마음 한 모퉁이에 상식을 놓쳐 뿌린 결과가 어떤가? 해 보자 하는 농치기 쉬운 어떤 힌트같이 번쩍이는 생각을 보자 정일이는 조금씩 도장을 뒤져내며, 자 칠 대로 치우, 나는 어디다 치는 것도 모르니까 하였다. 이렇게 지껄이듯이 말하는 정일이는 자기가 실없이 웃기까지 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지금 더 심한 심열에 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갑자기 말과 웃음과 표정까지 없어지고 말았다.

㉢도장을 치고 난 용팔이는 공손히 정일이에게 돌리며, 잔금은 제가 장인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일어서다. 중문으로 들어 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을 바라보던 정일이는 갑자기 불려내고 싶었다. 궁둥이를 들먹하고 부르는 손짓까지 하였으나 탄력 없이 벌어진 입에서는 말이 나오지 않았다. 창졸간에 용팔이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서 주저되는 것 같기도 생각되었다. 중문 안으로 들어가는 용팔이의 뒷모양은 마치 심한 장난을 꾸미다가 용기를 못 내는 자기를 남겨

두고 ㉣그걸 못 해? 내 하마 하고 나서는 동무의 모양같이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중시 용팔이가 중문 안으로 사라져서 불려낼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고 후회하면서도 내가 정말 후회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따라가서 붙들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일이는 용팔이가 이 말을 시작하였을 때부터 자기는 육감으로 벌써 예기하였던지도 모를 일이 지금 일어나리라는 기대가 앞서는 것을 느끼며 ㉤정일이는 실험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이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예사로운 말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리이므로 긴장한 정일이의 귀에도 한참 동안은 아무런 말도 들리지 않았다. 아버지도 중시 죽음에 굴복하고 마는가? 이렇게 생각되어 정일이는 긴장하였더니만큼 허전한 실망에 담배를 붙이려고 성냥을 그었을 때 자기의 귀를 때리는 듯한 아버지의 격분한 고함 소리를 들었다.

5)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정일이 주목하는 용팔이의 이해타산적인 태도를 드러낸다.
- ② ㉡는 용팔이 정일에게 예의를 갖추어야 하는 위치임을 드러낸다.
- ③ ㉢는 용팔의 행위에 대한 정일의 실망스러운 마음을 드러낸다.
- ④ ㉣는 아버지와 용팔 간 대화의 결과를 정일이 주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6) 다음 선지는 올바르지 않다. 이유는 무엇인가?

- (정일이) 상대의 웃음에서 공모 의사를 읽어 내자 얼굴에 흐르는 미끄러지는 듯한 웃음을 깨닫는 데에서, 상대에 대한 불쾌감을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자신을 의식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군.

5) ③ ‘실망’이라는 심리는 그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 그러나 정일은 용팔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졌던 적이 없다. 여기서 일단 ③을 의심 가능하다. 이 생각을 바탕으로 ㉣를 보면, ㉣는 오히려 정일이 ‘용기를 못 내는 자신에 대한 용팔의 생각이 어떠할지 미루어 짐작’하는 대목이다.

6) 정일이 웃음을 지은 이유가 ‘불쾌감의 무마를 위해서’라고 해석할 견덕지가 없다. 오히려 용팔의 의사(=재산 상속 받아라)를 읽어내자 웃음을 지은 거라면, 이는 상속에 대한 기대 감때문이라 해석할 수 있다.

## 시험이 끝나고

시험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다!

생각보다 결과가 만족스러운 사람도,  
생각보다 결과가 아쉬운 사람도 있겠지?

하지만 익히 들어서 알 듯, '수능 미만 잡'이다!  
모의고사는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점수가 중요한 건 오로지 '수능' 뿐이니까.

모의고사는 '실전 연습'과 '평가원의 출제 방향성 확인'  
이 두 요소만 잘 챙겨가면 돼.

물론,  
만족스러운 결과에 자만감이 들 수도,  
아쉬운 결과에 좌절감이 들 수도 있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겠지.  
인간이니까.

그러나 그 마음과 별개로, 우리는 다시 '할 거'를 '하자'.  
자만이든, 좌절이든, 불안이든, 기대든,  
'할 거'를 '해놓고' 감상에 젖어보는 거야.

주어진 매일매일의 과제에 성실히 임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과정에 큰 후회를 남기지 않을 수 있어.

반대로 우왕좌왕하면서 매일을 허비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과정에 후회가 남게 되겠지.

사실 국어는 모의고사 친 당일엔 자가채점하면서 분석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그럴 수 있는 철인은 별로 안 될 테니까, 일  
단 오늘은 꼭 쉬자. (뭘 영화를 본다던가, 친구랑 수다를 떠하던  
가, 못 잔 잠을 잔다던가 등등 중독성이 없는 걸로 휴식을 취하  
자.)

그리고 내일(목요일)부터 다시 REFRESH된 상태로 공부를 시작  
하자. 모의고사 분석 방법은 일교시의 행동강령과 똑같아.

## < 모의고사 분석 방법 >

### Step 0 주의사항

- ※ 절대 먼저 채점하지 않는다! 문제의 정답을 알게 되면 정답에 생각을 끼워 맞추게 된다.
- ※ 꼭 해야겠다면 쌤한테 카톡/밴드 채팅으로 정답만 보내라! 내가 채점해서 점수만 알려준다!

### Step 1 자가 채점하기

자기가 푼 모의고사 시험지를 준비하고, **정답을 보지 않고 스스로 채점해보자.**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맞은 것 같은 문제에 대하여 O, 틀린 것 같은 문제에 대하여 X,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는 문제에 대하여 ?를 쳐두자. (?를 치는 문제가 최대한 없어야 해.) 이 과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실전에서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이상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등을 깊게 분석해볼 수 있어.

### Step 2 코멘트 달기

한 세트의 지문에 대하여 자가 채점이 끝나면, **지문/문항 별로 나름의 느낀점을 코멘트로 달아보자.** 1) 무엇을 묻는 지문/문항이었으며 2)어떻게 푸는 게 가장 현실적이면서 이상적이었는지 3)처음에 풀 때 잘했던 점 or 못했던 점이 무엇인지 4)그래서 이 문항에서 얻어가야 할 점은 무엇인지, 간단하게 정리해놓자. 나중에 이 코멘트만 읽어도 복습에 용이할 거야.